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⑨

故云在聖智而不揮 隱凡心而不昧
고운재성지이불휘 은범심이불매
旣不增於聖 不少於凡
기부증어성 불소어범
佛祖奚以異於人 而所以異於人者
불조해이이어인 이소이이어인자
能自護心念耳 汝若信得及
능자호심념이 여약신득급
疑情頓息 出丈夫之志 發眞正見解
의정돈식 출장부지지 발진정견해
親嘗其味 自到自肯之地
친상기미 자도자긍지지
則是爲修心人 解悟處也
즉시위수심인 해오처야
更無階級次第 故云頓也
갱무계급차제 고운돈야
如云於信因中 契諸佛果德
여운어신인중 계제불과덕
分毫不殊 方成信也
분호불수 방성신야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둡지 않다'하였다. 이미 성인이라 해서 불어나는 것도 아니오, 범부라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나 조사들이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담박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頓:문득, 또는 담박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것은 '믿음의 요인이 모든 부처의 과덕(果德:최상의 결실로 얻어지는 덕)과 일치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 말과 같다.

問旣悟此理 更無階級
문기오차리 갱무계급
何假後修 漸熏漸成耶
하가후수 점훈점성야

물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친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려고 합니까."

答悟後漸修之義 前已具說
답오후점수지의 전이구설
而復疑情未釋 不妨重說
이부의정미석 불방중설
汝須淨心 諦聽諦聽 凡夫
여수정심 체청체청 범부
無始曠大劫來 至於今日
무시광대겁래 지어금일
流轉五道 生來死去 堅執我相
유전오도 생래사거 견집아상
妄想顚倒 無明種習 久與成性
망상전도 무명종습 구여성성
雖到今生 頓悟自性 本來空寂
수도금생 돈오자성 본래공적
與佛無殊 而此舊習
여불무수 이차구습
卒難除斷 故 逢逆順境 瞋喜是非
졸난제단 고 봉역순경 진희시비
熾然起滅 客塵煩惱 與前無異
치연기감 객진번뇌 여전무이
若不以般若 加功着力
약불이반야 가공착력
焉能對治無明
언능대치무명

"어째서 깨친 뒤에도 점차로 닦습니까"
"무명의 습 갑자기 없앨 수 없기 때문"

답했다. "깨달은 뒤에 점차로 닦아야 하는 뜻은 앞에서 이미 말했다. 그러나 의심을 풀지 못했으니 거듭 설명하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으라. 범부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 갈래의 세계(五道)에 흘러다니며 태어나고 죽고 하되,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妄想顚倒 : 현재의 번뇌)과 무명의 습기(無明種習 : 근본 번뇌)가 오랫동안 지금의 성품을 이루었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금방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며,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이 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여, 객관 세계에 대한 번뇌가 그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지혜로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수천장씩 초를 그리듯

만봉스님〈봉원사 주석〉

약력
- 1909년 서울 生
- 16년 금어(金魚) 김예운화상 문하 입문
- 24년 불교전문강원 수료
- 26년 봉원사 출가 금어 자격 취득
- 72년 인간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지정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 75년 서울 봉원사 주지 역임
- 78년 일본 전시회
- 89년 경복궁 전통공예관 특별기획전
- 91년 일본 동경 경도 등 순회전시
- 98년 은관 문화훈장 제127호 수훈

오는 10월에 90세 기념 전시회를 엽니다. 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보니 확실한 삶의 비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겁디다. 요즘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합니까. 나 역시 그림을 선별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절이나 전시회 등에서 불화를 접하게 되는 불자들도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돼요. 정신 집중을 하고 그림 속의 부처님을 느끼고 보살님을 접해야 합니다.

나는 20살이 믓돼서 출가했어요. 절에 들어온 것은 여섯살 때 일이지만 그 때야 뭘 알고 절에서 살았겠습니까. 그저 명이 짧아 절에 가야만 장수할 것이라는 지나가던 객승의 말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내가 눈에 들으셨던지 여덟살 때부터 당시 유명한 금어(金魚)셨던 예운스님의 제자가 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저 불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지요. 예운스님이 시키는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인연이기보다 전생 인연을 이어가는 길을 그 어린 나이에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는 전생에도 불화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림공부는 20년 정도 했고 그 후에 자작을 시작했지요. 자작그림을 그린지만도 60년이 넘습니다. 무슨 일이나 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오직 그림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만 전념해야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옵니다.

스승 덕분에 10년동안 그림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열여덟에 금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운스님은 내가 미덥지 않으셨던지 스물이 넘어서야 비로소 금어로서의 일을 허락하셨어요. 금어가 되면 10여 단계로 진행되는 단청일을 지휘할 수 있는데 금어가 되고서도 2년이 지나서야 금어의 일을 맡기셨던 거지요. 틀림없이 너무 어린나이에 금어가 돼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됩니다.

금어가 되면서 정식으로 이곳 봉원사에서 출가했습니다. 내게 수행은 불화를 그리며 마음다스리는 것이었지요. 그림그리는 것에 원래 취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종일 무릎꿇고 엎드려서 똑같은 그림을 수천장씩 그리는 것이 재미있을 리 있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요. 그림공부를 하면서 용맹정진도 많이 했습니다. 불화를 그리는 제자들에게 용맹정진을 시키지는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경건한 마음과 신심은 강조합니다.

불교전문강원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 등 글공부를 조금하고 범패를 배웠습니다. 봉원사 범음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하스님께 직접 지도받았지요. 그러다보니 1966년 창립된 옥천범음회에서 6년동안 회장직을 맡아 1972년 영산재보존회가 생길 때까지 회장을 했었지요. 범패공부는 영산재 짓소리까지 배웠습니다. 범패공부를 한 것도 수행자로서 근본적인 원리를 깨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글공부도 그렇구요. 이후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내 근기가 그림이거든요.

72년 나는 단청장이 되었습니다. 불화는 탱화위주인데 단청이 쉬워 보여도 단청을 하기 전에 불화를 배워야 합니다. 시방초라고 초등과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비록 내손으로 화룡점정했지만 화폭에 나툰 부처님 내몫 아니죠 중생속으로 떠나셨으니까요"

이 시방초를 3천장 이상을 그려야 중등과에 해당하는 천왕초 그리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 천왕초는 사천왕상을 3천장 그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그리는 여래초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3천장을 그려야 합니다. 탱화나 단청에 쓰이는 색깔은 20여가지정도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천장씩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는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겨 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불화 그리는 일에만 속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내가 그림을 배우면서 9천여장의 초를 그린 것이 어디 이론으로 될 일입니까. 스스로의 노력 속에서 떠지는 눈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린나이에 더러 꾀도 생기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그래도 그 일에 왠지 마음이 끌려 견디다 보니 10년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은 나에게 색과 선을 보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책을 보며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사는 일도 이와 같은 게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화 그리는 일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돈 같은 재물의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의 계산이 앞서서도 안됩니다. 모든 불사는 크건 작건 간에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이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한 불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는데 재물의 계산이 앞서면 이미 그 일은 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딴마음을 품고 그림에 임하는데 색이 잘 나올리 없고 선이 힘차고 곧고 부드러울 리가 없습니다. 지극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부처님 상호를 그리는 선(線) 하나하나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㊀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시간
05	00 아침예불 (송가대 스님)		05
	45 마음을 비우고 (이명학ANN)		
06	00 교계뉴스 (장수연ANN)		06
	05 경전공부 (일초스님)		
	25 고승열전 (구인 外)		
	35 교리강좌 (혜정정사)		
	55 선행365일 (김홍원)		
07	00 뉴스 (장수연)		07
	10 박종운의 아침저녁 1부 BBS 캠페인 (박정휘ANN)	05 법요교창강좌(최은경ANN)	
08	00 BBS뉴스쟁점(보도팀/장수연ANN) (08:25~08:30, L)	00 법고와 죽비(보교제자팀)	08
	30 박종운의 아침저녁 2부 (L)	20 사원순례(최은경ANN)	
	1분묵교창식 (이승휴ANN)		
09	00 뉴스 (박종석ANN)		09
	05 자한전의선물 (권명스님) / (금) 기독한반남(도원스님)		
10	00 뉴스 (이현정ANN)		10
	05 지비의 전화 (최은경ANN/혜거, 원광, 본각스님)	00 라디오 법회(이명학ANN)	
	55 반야심경(우리말) (장수스님)		
	기상정보 (김수정REP)		
11	00 뉴스 (박정휘ANN)		11
	10 행복스튜디오 동일원입니다	05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휘/이현정ANN) (12:15-12:20, L)		12
	20 허영준의 팬플가요 1부	10	
13	00 뉴스 (박종석ANN)		13
	05 허영준의 팬플가요 2부		
14	00 뉴스 (이명학ANN)		14
	10 권즈 대장경 (정윤탄, 장수연ANN)	05 우리가락의 향기(송혜선)	
	50 고승열전(재) (구인 外)		
15	00 뉴스 (최은경ANN)		15
	05 BBS경륜상담실 (이현정ANN/권순연, 김홍탄, (L) 도영숙, 김동호, 선종태, 최광복성)	05 김윤창아시 (이명학ANN)	
	1분묵교창식 (이승휴ANN)		
16	00 뉴스 (이명학ANN)		16
	10 음악의마음 (박정휘ANN) (L)	05	
17	00 뉴스 (이승휴ANN) (L)	00 장명희시간 (이현정ANN)	17
	10 무명을 밝히고 (이명학, 최은경ANN)	20 법요초대석 (김혜정)	
	BBS 캠페인 (박정휘ANN)		
18	00 저녁예불 (송가대 스님)		18
	15 정법수의 정보 가이드		
19	00 BBS저녁종합뉴스(이명학/이선희ANN-보도팀)		19
	25 무농산 경제 (이정대)	10 봄비나눔선(자용스님)	
	55 우리들의 찬불가 (장수연ANN/가무반가합창단)		
20	00 교계뉴스 (이승휴ANN)		20
	05 김명호의 다시듣 고정은노래		
21	00 뉴스 (이선희ANN)		21
	10 선행365일(재) (김홍원)		
	15 경전공부(재) (일초스님)		
	35 반야심경(한문) (장수스님)		
	40 교리강좌(재) (혜정정사)		
22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22
	05 명화음악실 (박종석ANN)		
23	00 뉴스 (이선희ANN)		23
	05 현대인을 위한 계달음의 강좌1부(법륜스님)	05 그리운동물하나1부(김정희)	
24	00 현대인을 위한 계달음의 강좌2부(법륜스님)	00 그리운동물하나2부(김정희)	24
	45 취수경 (순명사 스님)		
01	00 한밤의 명상 (이선희ANN)		01
	55 사홍서원 (합창단)		